

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

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6월 21일

대중국 무역구제 조사 추이와 중국의 반응

문의처: KIEP 북경사무소 (hjpark@kiep.go.kr, Tel; 86-10-8497-2870)



- ▣ 지난 2009년 12월 1일, 중국 상무부는 「세계무역마찰연구보고」(2009)를 발표, 중국이 14년 연속 전 세계에서 무역구제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며, 기술성 무역장벽은 중국의 수출이 직면한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이라고 밝힘.
- ▣ 상무부에 의하면, 1979~2008년 사이 1,157건의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, △ 반덤핑 957건 △ 반보조금 24건 △ 세이프가드 100건 △ 특별 세이프가드 76건을 기록하였음.

 -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 중 미국·유럽이 주요 제소국가이며, 대중국 반덤핑 조사국 35개 국가 중 24개 국가가 개발도상국가임.
 - 산업별로는 화공·경공업·야금 산업의 무역구제 조사 비중이 높았음.
 - 중국의 WTO 가입 후 미국의 대중국 337조사(지식재산권 조사)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 - 반덤핑 이외의 반보조금·세이프가드·특별 세이프가드·반덤핑관세협수·우회덤핑방지 조사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음.
- ▣ 세계 각국의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에 대해 최근 2년 사이 중국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으며, 향후 산업별 분산된 대응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임.

 - 포스트 금융위기 시기에 강화되는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△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동시에 △ 국가적 차원의 반덤핑 경보·응소 체제 구축, △ 중국 및 무역마찰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화·교류·협상 능력의 제고 등을 건의함.

1. 개요

■ 지난 2009년 12월 1일, 중국 상무부는 「세계무역마찰연구보고」(2009)¹⁾를 발표함.

- 본 보고는 중국이 직면한 무역마찰에 대해 전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, 무역구제·지식재산권·기술성 무역장벽 등 무역마찰의 특징과 발전추세에 대해 분석하고, 무역마찰과 관련한 최신 통계와 연구성과를 포함하고 있음.

■ 상무부는 중국이 14년 연속 전 세계에서 무역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며, 기술성 무역장벽은 중국의 수출이 직면한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이라고 밝힘.

- 특히 최근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무역과 투자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,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도 늘어나고 있음.
- 상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1~11월 사이 19개 국가(지역)가 중국제품에 대하여 총 101건 무역구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금액은 116.8억 달러를 넘어섬.

■ 다음에서는 「세계무역마찰연구보고」(2009) 중 무역구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, 대중국 무역구제에 대한 중국 내 반응을 정리하였음.

2. 세계 무역구제 현황

■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산업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무역구제 조사를 강화하였음.

- WTO 수치에 의하면 2008년 WTO 회원국의 무역구제 조사건수는 총 227건(2007년 동기대비 43건 증가)을 기록함.

○ 그 중 △ 반덤핑 208건(2007년 동기대비 45건 증가) △ 반보조금 14건(2007년 동기대비 3건 증가) △ 세이프가드 5건(2007년 동기대비 3건 감소) 등임.

■ 1995~2008년 기간 중 WTO 회원국은 모두 3,810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반덤핑 조사는 무역구제 조사의 주요한 수단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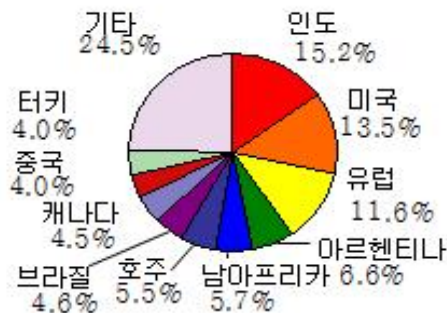
1) 『全球貿易摩擦研究報告』(2009).

- 같은 기간 △ 43개 회원국은 3,427건(89.9%)의 반덤핑 조사 △ 18개 회원국은 215건(5.6%)의 반보조금 조사 △ 40개 회원국은 168건(4.4%)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함(그림 1 참고).

그림 1. 1995~2008년
WTO 회원국의 무역구제 조사(유형별)



그림 2. 1995~2008년 WTO
회원국의 무역구제 조사국 분포



자료: 商务部产业损害调查局中国贸易救济信息网(2009), 『球贸易摩擦研究报告』.

■ 중국, 한국,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구제의 주요 조사 대상국이었음.

- 3,427건 반덤핑 피조사국 중 상위 5개국은 △ 중국 677건(19.8%) △ 한국 252건(7.4%) △ 미국 189건(5.5%) △ 대만 187건(5.5%) △ 인도네시아 145건(4.2%)임.
- 215건 반보조금의 피조사국 중 상위 5개국은 △ 인도 46건(21.4%) △ 중국 23건(10.7%) △ 한국 16건(7.4%) △ 이탈리아 13건(6.0%) △ 인도네시아 11건(5.1%)임.
- 중국은 2004년부터 반보조금 조사를 받았으며 4년간 외국의 대중국 반보조금 조사가 크게 증가하였음.
- 아시아지역은 주요 반덤핑 조사지역이자 주요 피소지역임(그림 3, 그림 4 참고).
- 43개 WTO 회원국의 3,427건의 반덤핑 조사 중 △ 아시아 1,211건(35.3%) △ 북미주 687건(20.0%) △ 남아메리카 575건(16.8%) △ 유럽 433건(12.6%) △ 아프리카 271건(7.9%) △ 오세아니아 250건(7.3%)임(그림 3 참고).
- 반덤핑 피조사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, △ 아시아 2,034건(59.4%) △ 유럽 771건(22.5%) △ 북미주 323건(9.4%) △ 남아메리카 188건(5.5%) △ 아프리카 79건(2.3%), △ 오세아니아 32건(0.9%)임(그림 4 참고).

■ 산업별로는 비금속·화학 제품에 집중되었으며, 그 중 50% 이상은 아시아지역의 수출 상품과 관련됨.

- 비금속제품(HS 코드: 제15부)의 반덤핑·반보조금·세이프가드 조사건수는 각각 948건, 81건, 23건이며 화공제품(HS 코드: 제6부)의 반덤핑·세이프가드 조사건수는 각각 690건, 28건이었음.

그림 3. 1995~2008년
세계 반덤핑 조사국의 대륙별 분포 현황



그림 4. 1995~2008년
반덤핑 피조사국의 대륙별 분포 현황



자료: 商务部产业损害调查局中国贸易救济信息网(2009), 『球贸易摩擦研究报告(2009)』.

3.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 추이

가. 무역구제 조사의 유형별·시기별 분류

- 중국 무역구제정보망(中国贸易救济信息网)의 통계에 의하면 1979~2008년 사이 세계 각국은 1,157건의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구체적으로 △ 반덤핑 957건 (82.7%) △ 반보조금 24건(2.1%) △ 세이프가드 100건(8.6%) △ 특별 세이프가드 76건(6.6%)임(그림 5 참고).

그림 5. 1979~2008년
대중 무역구제 조사 분류(유형별)



그림 6. 1979~2008년
대중 반덤핑 조사국별 분포 현황



자료: 商务部产业损害调查局中国贸易救济信息网(2009), 『球贸易摩擦研究报告(2009)』.

- 2008년의 경우, 외국의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는 104건으로 2007년 같은 기간대비 27건(35.1%) 증가하였으며 관련 금액은 62억 달러에 달함. 또한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도 다양해지고 있음.
- 미국과 유럽은 대중국 반덤핑 주요 조사국이며, 중국은 무역구제 피조사국(지역) 중 최대 반덤핑 피소국가이자 2위의 반보조금 피소국가임.
-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의 다양화·복잡화로 1995년 이후 대중국 반덤핑 조사 외에 반덤핑관세흡수²⁾(Anti-Absorption)·우회덤핑방지(Anti-circumvention)³⁾의 조사가 크게 증가하였음.
- △ 1995년 이전에는 유럽의 반덤핑관세흡수 2건, 미국의 우회덤핑방지 1건이 조사 진행되었으나 △ 1995년 이후에는 외국의 대중국 우회덤핑방지·반덤핑관세흡수의 조사가 각각 37건, 6건 실시되었으며 조사국 역시 미국·유럽에 이어 터키·멕시코·남아프리카로 확산됨.
- 1979~2008년 기간 중 반덤핑 조사건수가 가장 많았으며,⁴⁾ 반보조금·세이프가드·특별 세이프가드의 사용빈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함(표 1 참고).

표 1. 시기별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 비중(유형별)

단 계	1979~94(16년)		1995~2001(7년)		2002~08(7년)	
	건수(개)	비중(%)	건수(개)	비중(%)	건수(개)	비중(%)
반덤핑	262	98.5	276	90.8	419	71.4
반보조금	0	0	0	0	24	4.1
세이프가드	4	1.5	27	8.9	69	11.8
특별 세이프가드	0	0	1	0.3	75	12.8
합 계	266	100.0	304	100.0	587	100.0

자료: 商务部产业损害调查局中国贸易救济信息网(2009), 『球贸易摩擦研究报告(2009)』.

- 1979~2008년 기간 중 △ 반덤핑의 비중이 98.5% → 71.4%로 줄었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△ 반보조금 비중이 0% → 4.1% △ 세이프가드 비중이 1.5% → 11.8% △ 특별 세이프가드 비중이 0% → 12.8%로 모두 증가함.

- 2) 반덤핑관세흡수(Anti-Absorption)란 특정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후 이 제품의 시장가격이 관세액 만큼 상승하지 않은 경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반덤핑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제품에 대하여 다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함.
- 3) 우회덤핑방지(Anti-circumvention)는 수출기업들이 제3국이나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, 즉 반덤핑관세부과 결정을 우회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괄하는 용어임.
- 4) 2003년 후 중국은 세계 반덤핑 피조사건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%를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, 2007년에는 37.4%에 도달하였음.

나.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국

-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국은 △ 1979~94년 18개국 △ 1995~2001년 26개국 △ 2002~08년 35개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
-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덤핑 조사국은 다음과 같음.
 - 조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, 1979~2008년 957건의 대중국 반덤핑 조사 중 △ 미국·유럽은 각각 약 138건 △ 인도는 126건 △ 호주 69건이며 이 4개 국가(지역)의 대중국 반덤핑 조사건수는 대중국 반덤핑 총조사건수 중 49.2%를 차지함.
 - 조사국을 기준으로 1979~2008년 기간 중 대중국 반덤핑 조사국은 모두 32개 국가(지역)로 개발도상국은 24개국임. 상위 10개 조사국 중 개발도상국은 7개 국가임.
 - 즉 △ 인도: 126건 △ 터키: 64건 △ 멕시코: 60건 △ 아르헨티나: 60건 △ 남아프리카공화국: 51건 △ 브라질: 45건 △ 한국: 29건 등 7개국임.
- 기타 반보조금, 세이프가드, 특별 세이프가드의 조사국 현황은 다음과 같음.
 - 1979~2008년 기간 중 대중국 반보조금 총조사 중 미국 13건, 캐나다 8건, 호주와 남아프리카 각각 2건, 1건을 나타냄.
 - 1979~2008년 기간 중 △ 100건의 대중국 세이프가드 중 상위 3개 국가는 터키(15건, 15%), 인도(11건, 11%), 우크라이나(8건, 8%)이며 △ 76건의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중 상위 3개 국가는 미국(41건, 54%) △ 유럽 10건(13.2%) △ 터키 7건(9.2%)임.

다. 산업·제품별 무역구제 조사

- 1979~2008년 대중국 반덤핑 조사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△ 화공제품 229건(23%) △ 경공업제품 219건(23%) △ 야금제품 101건(11%)이 상위 3대 조사품목임(그림 7 참고).
- 대중국 반보조금 조사의 경우, 2004~08년 중 야금·화공 제품은 각각 8건(33%), 4건(17%)으로 5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(그림 8 참고).
- 1987~2008년 100건의 대중국 세이프가드 중 경공업제품이 35건으로 35.0%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공업분야는 18건으로 18%, 건축재료공업은 11건으로 11%를 차지함(그림 9 참고).

- 2002~08년 중 76건의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 중 방직품의 건수가 55건(71%)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경공업 8건(11%), 화공·기계·건축재료·금속 제품과 야금제품은 2건(3%)씩 기록됨(그림 10 참고).

그림 7. 1979~2008년
산업·제품별 대중국 반덤핑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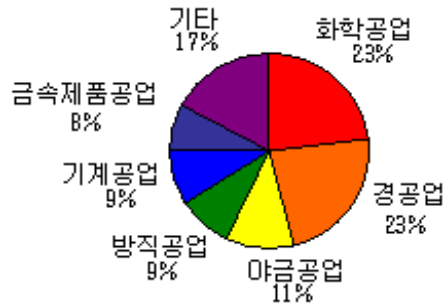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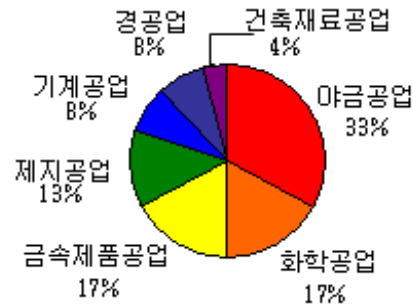


그림 8. 2004~2008년
산업·제품별 대중국 반보조금 조사



자료: 商务部产业损害调查局中国贸易救济信息网(2009), 『球贸易摩擦研究报告(2009)』.

그림 9. 1987~2008년
산업·제품별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사



그림 10. 2002~2008년
산업·제품별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조사



자료: 商务部产业损害调查局中国贸易救济信息网(2009), 『球贸易摩擦研究报告(2009)』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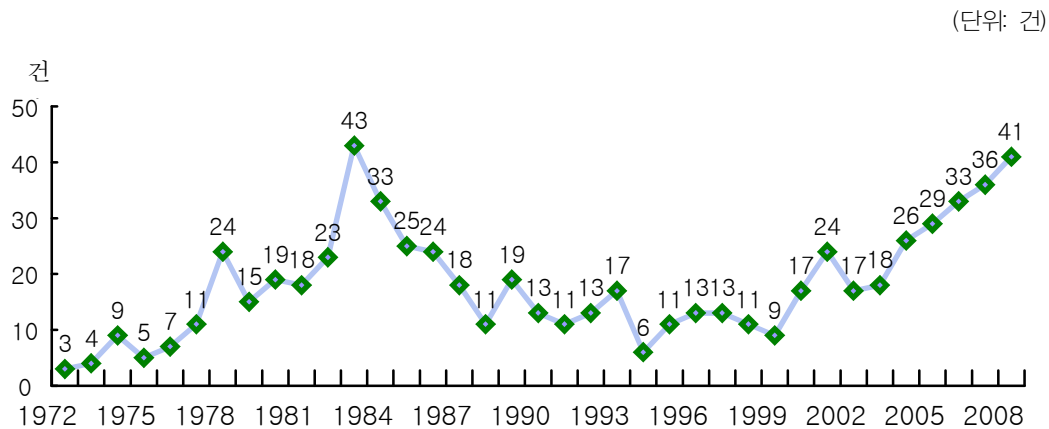
라. 미국의 지식재산권 조사 강화

- 최근 들어 미국의 337조사⁵⁾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만·일본·중국은 337조사의 주요 조사대상국임(그림 11 참고).

– 1972~2008년 기간 중 미국이 실시한 337조사는 총 669건이며, 국가별로는 △ 대만 163건(24.4%) △ 일본 139건(20.8%) △ 중국 90건(13.5%)임.

5) 미국 관세법 337조로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중 하나로 특정 제품의 미국 수입 시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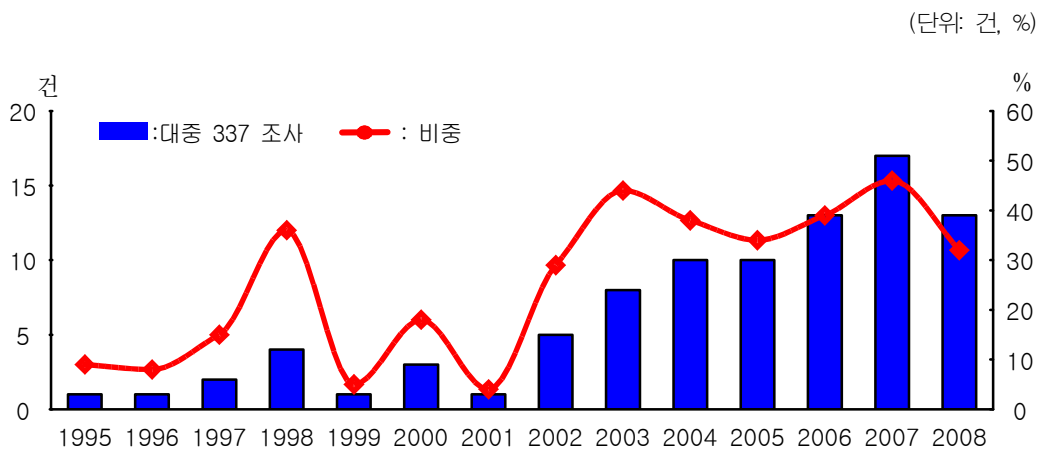
그림 11. 1972~2008년 미국의 337조사 추이



자료: 商务部产业损害调查局中国贸易救济信息网(2009), 『球贸易摩擦研究报告(2009)』.

■ 중국의 WTO 가입 후 미국의 대중국 337조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.

그림 12. 1995~2008년 미국의 대중국 337조사 건수와 비중



자료: 『国家发展研究中心』(2008. 12. 19), 『美国对华337调查的现状与政治经济学分析』; 商务部产业损害调查局中国贸易救济信息网(2009), 『球贸易摩擦研究报告』.

- 미국의 대중국 337조사는 1986~95년 3건(총 143건), 1996~2005년 43건(총 177건)이었으며, 2006년, 2007년, 2008년에는 각각 13건(총 33건), 18건(총 36건), 13건(총 41건)임(그림 12 참고).
- 산업·제품별로 살펴보면, 1986~2008년 총 90건 중 △ 전자제품 35건(38.9%) △ 경공업제품 25건(27.7%) △ 기계제품 14건(15.6%)으로 대부분을 차지함.

4. 중국의 반응

- 중국물류정보센터(中国物流信息中心)의 천중타오(陈中涛)는 미국의 타이어 특별보호안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의 대중국 무역마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, 포스트금 융위기시기에 중국의 기업과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함.
- 바오강(宝钢)그룹의 쉬러장(徐乐江)은 보호무역주의는 WTO 규정과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되고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실시한 국가의 Downstream 산업의 이익 역시 손해를 주는 것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발전에 불리하다고 언급함.
- 최근 몇몇 국가의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반보조금·반덤핑·관세장벽 등의 무역보호조치가 철강제품의 무역유통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 철강업종의 발전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함.
- 상무부 대변인 야오젠(姚坚)은 미국의 중국산 아트인쇄지·인산염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하여 “미국의 차별적 조치는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고 반보조금 세율을 높여 중국제품의 정상적인 수출을 불공정하게 제한하였다”고 언급함(2010. 3. 6).
- 야오젠은 중국은 반드시 WTO 규정과도 모순되는 이러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 남용을 반대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향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함.
- 화평(华峰)그룹 이사회 롱샤오핑(尤小平) 의장은 현재의 반덤핑 행정법규를 국가 법률로 발전시키고, 반덤핑 경보·응소(應訴)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언급함.
- 정부 관련 부문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구체적인 반덤핑 응소과정 중 협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의하였음.
- 미국 상무부의 선물용 리본에 대한 샤먼(厦门)의 야오밍선물용리본장식용품유한회사는 반덤핑·반보조금 조사에서 적극적인 응소로 영세율의 1차 판결을 받음.⁶⁾
-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(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, 이하) 부주임 바이밍(白明)은 중국은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무역마찰에 대응하는 완전한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함.

6) 야오밍선물용리본장식용품유한회사(姚明织带饰品有限公司)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덤핑률이 0%로 1차 판결된 반면, 응소를 포기한 다른 한 기업은 231.4%의 징벌성 관세가 부과되었으며, 기타 13개 기업은 115.70%의 반덤핑 세율이 결정됨(2010. 2. 6).

- 바이밍에 의하면 과거에는 다른 나라가 먼저 무역보호조치를 실시하면 중국은 이에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식이었으나 최근 2년간은 능동적으로 반제조치(反制措施)를 실시하는 등 변화가 있었음.⁷⁾

-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(进出口公平贸易局) 국장 조우샤오옌(周晓燕)은 무역보호주의를 확고히 반대하며 국가와 산업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과 동시에 대화·교류·협상을 강화하여 무역상대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win-win 전략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. KIEP

<참고자료>

- 商务部产业损害调查局中国贸易救济信息网, 2009, 『球贸易摩擦研究报告(2009)』
- 『国家发展研究中心』, 2008, 「美国对华337调查的现状与政治经济学分析」(2008. 12. 19).
- 『中国贸易救济信息网』, 2008, 「我国贸易救济申诉案件的特点及趋势」(2008. 5. 15).
- 『京华时报』, 2009, 「宝钢掌门称一些国家滥用贸易救济措施」(2009. 12. 3).
- 『凤凰网』, 2010, 「商务部今年来两度表态:坚决反对美滥用贸易救济措施」(2010. 3. 6).
- 『中国经济导报』, 2010, 「中国需应对好贸易战等 ‘四场大战’」(2010. 5. 12).
- 『中国贸易救济信息网』, 2010, 「轻工行业反倾销案例分析」(2010. 3. 22).
- 『金融界网站』, 2010, 「周晓燕:反对贸易保护主义旗帜 积极应对贸易摩擦」(2010. 5. 16).
- 『新快报』, 2010, 「贸易保护抬头华商很受伤」(2010. 5. 31).

자료 정리: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이일남 (boys8man@hotmail.com)

7) 미국의 「중국산 타이어 특별 보호안」에 대한 중국의 「미국산 육계 반덤핑·반보조금」 조사조치를 예로 들 수 있음.